

사회

구청 민원팀 황당·음해 민원 '골머리'

주민들의 고충이나 불편을 구청장이 직접 관장해 신속히 처리할 목적으로 신설한 광주지역 자치구 민원팀이 각종 억지성, 음해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해당 팀들은 억지·음해성 민원의 대부분이 처리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민원인들의 반발을 우려, 어쩔 수 없이 접수 받고 있다. 접수 후에는 실제 조사까지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소모도 상당하다.

23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문을 연 '작소 민원실'에는 개소 직후부터 최근까지 총 7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남구 '고충민원처리팀'도 지난해 7월 신설 이후 이날까지 총 150여건의 민원을 받은 상태다.

서구 작소민원실과 남구 고충민원처리팀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종류와 관계 없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주는 탓인지 최근 이들

수억대 재산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해달라"
60대 여성 "따들림 경로당 노인 비리 조사"
사소한 일에도 "구청장 만나겠다" 떼 쓰기도
접수되면 일단 조사 ... 행정력 낭비

민원팀에는 무리한 요구나 특이인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짙은 민원이 끊임 없이 들어오고 있다.

자신을 '남편 없이 혼자서 2명의 자녀를 키우는 주부'라고 소개한 서구 주민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최근 작소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구청 조사 결과 A씨는 역대 예금과 주택 1채까지 가지고 있는 등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60대 여성 B씨는 "현재 다니고 있는 서구 모 경로당의 노인

회장이 나를 포함, 몇몇 회원들을 따돌리며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작소 민원실 직원들이 경로당 이용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노인회장의 비위행위는 없었으며, 일부 회원들의 사소한 감정 싸움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 고충민원처리팀 역시 서구와 비슷한 유형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남구 주민 C씨는 "부당하게 주차 위반에 단속돼 구청 교통과에 항의 전화를 걸었더니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여 소양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녹음된 통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되레 C씨가 구청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설 민원팀들은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맞춰 처리해주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당 민원인들이 '민원팀이 제대로 일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구청장에게 항의하는 등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구와 북구, 광산구 등의 민원실에도 사소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단체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떼를 쓰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서구 작소 민원실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의 부당한 민원은 실제로 다급한 민원의 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자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문화콘텐츠 기업 채용박람회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문화콘텐츠 기업 채용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과 주부 등 1000여명이 상담을 위해 각 부스 앞에 대기하고 있다. 이 채용박람회는 지난해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내 우수 IT 및 애니메이션 업체 4곳이 참가, 400여명의 인원을 채용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법주차 트럭에 추돌 일가족 3명 사망

운전자는 부상

광주에서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15t 화물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졌다.

23일 새벽 3시13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 주공아파트 3단지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김모(42·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15t 화물차 왼쪽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씨의 아내(38)와 뒷좌석에 앉아 있던 아들(13)·딸(12) 등 3명이 숨졌다. 김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장소는 편도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되는 직선도로이며, 갓길에는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다. 경찰은 김씨가 아내와 딸다툼을 한 뒤 서구 유촌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가게를 하는 아내의 물품을 가지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새벽 시간대 일가족이 함께 이동한 점과 현장에 타이어 자국(스키드마크·skid mark)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혈을 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해 발생한 만큼 화물차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화물차 추돌 뒤 추락 승용차 운전자 부상

23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본덕동 예비군 훈련장 인근 도로에서 양모(21)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가던 김모(43)씨의 11t 화물차를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양씨가 머리와 손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커브길에서 과속운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장 등 6천만원 횡령 의혹

여수 모 전문계고 ... 도교육청, 2명 검찰에 고발

여수지역 모 전문계 고교 교장 등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학교는 규칙을 어기고 학생들의 기능대회 출전 비용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여수 A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2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지난해 B교장과 행정실장을 직위해제 했다.

B교장 등은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민 뒤 차액을 빼돌리

는 수범으로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민원인 제보에 따라 감사에 착수, 용접봉 등 각종 실험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리는 수범으로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교장 등은 횡령금액을 모두 반납했으나 학교 물품과 용역 공사 등에 부족한 공사비로 충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또 이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거뒀던 1800만원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민원침 (8275) 김중두



조선족 30명 취업알선 완도해경, 50대 검거

완도해양경찰은 23일 조선족들을 초청해 국내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킨 김모(56·완도군)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양식기술 습득을 위해 입국한 조선족 심모(35)씨 등 30명을 취업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양식장에 취업시킨 뒤, 양식장 업무료로부터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 완도군 고금도에 아내 명의로 수산양식학원을 차려놓고 양식기술 이전을 미끼로 심씨 등을 중국에서 초청한 뒤, 양식장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이혼녀에 "사귀자" 접근해 패물 훔쳐

○이혼한 여성에게 "사귀자"고 접근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여성이 출근한 사이 금패물을 턴 30대가 경찰서 행.

○2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2)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숭정동 유모(여·33)씨의 집에 침입해 장롱 안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쌍가락지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다닌 것.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이혼 후 혼자 사는 유씨가 전 남편에게 혼수로 받은 금패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사귀자고 접근했는데, 유씨는 경찰에서 "박씨를 믿고 집으로 초대했는데, 패물을 훔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

술 취하면 "엄마" ... 술 깨면 "아빠"

'여자'가 되고픈 30대 아빠의 행패
자녀 4명 상습 학대 ... 징역 2년 형

평소 여자가 되길 꿈꾸던 30대 트랜스젠더가 친자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오모(31)씨. 오씨는 여관 등을 전전하며 두 명의 동거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진짜 '여자'가 되려 했다. 하지만 성전환수술을 받지 못한 오씨는 밤마다 술에 취해 자녀들을 폭행했다. 오씨는 아침에 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오모(31)씨. 오씨는 여관 등을 전전하며 두 명의 동거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는 더욱 심해졌다. 결국 오씨는 이 모습을 보다 못한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불잡혔다.

군대까지 다녀 온 오씨는 "최근 몇년 전부터 여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었다. 꼭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최두호 판사는 "학대 행위 횡수와 형태, 이유 등을 종합했을 때 친권의 행사라거나 교육차원의 지도행위로 볼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오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A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어민상대 선박매매 사기 중개업자 구속·3명 입건

목포해양경찰은 23일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매매 사기 행각을 벌인 선박 중개업자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진도군 한 섬에 사는 장모(여·44)씨로부터 어선 매매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어선을 이전해 주지 않는 수범으로 영세어민 4명에게 모두 1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허위 선박검사증서 발급 과정에서 선박 검사원과 담당 공무원 등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법원, 신정아씨에 거액 배상 강제조정

성곡미술관에 1억2천만원

최근 자전 에세이를 펴내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신정아(39)씨는 한 때 일했던 미술관 측에 거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을 통해 신씨가 1억 2975만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단부는 이날 신씨와 재단 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양쪽 대리인만

참석함에 따라 신씨가 1억2975만원을 재단에 주도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재단이 운영하던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던 신씨는 2005년 3월~2007년 4월 11차례에 걸쳐 3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재단은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범행에 가담한 박문순 전 미술관이 반환한 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달라고 청구했다. /연필뉴스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면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